

무소속 양병우(사진) 에비후보는 10 일 최근 정민구 제 주도의원이 발의한 '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'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.

그는 "대정지역은 다크투어리즘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원이 많은 곳으로, 미래를 위해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과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"고 주장했다. 이태윤기자